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 글 우병진	소속(학부/과)	전자공학부 정보전자 전공
파견 학기	2018학년도 2학기	파견 국가	캐나다
파견 대학	Niagara College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어릴 적부터 외국에 대한 동경과 외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외국인을 만나기가 어려웠기에 금오공대에 입학한 후, 국제 교류 도우미 활동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서로 간의 우정을 쌓았습니다. 또한, 교류 도우미를 하면서 외국어 학습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교환학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유럽 나라와 미국, 캐나다 중에서 고민을 하였으나 부모님과 상담 끝에 캐나다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어권 국가이자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이며, 인종 차별이 없는 나라, 물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자매 학교를 비교하던 중 캐나다가 유일하게 '홈스테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였기에 캐나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출국 전, 총 2번의 오리엔테이션을 학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에듀 글로브' 유학원에서 항공권 구입, 파견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홈스테이 신청 등 모두 대신 해주었으며 비자 발급은 'ETA 비자'로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이 발급하면 됩니다. ETA 비자 발급 또한 '에듀 글로브'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수강신청은 따로 하지 않았으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기에 지도교수 수강 상담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단, 금오공대 등록금만 따로 지불하였습니다. 나이아가라 칼리지 등록금 + 금오공대 등록금 이중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칼리지에 도착하게 되면 Speaking, Grammar, Writing 총 세 개의 시험을 통하여 반이 배정되고 시간표는 반 배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따로 수강신청은 안 해도 됩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파견된 곳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웰랜드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되는 소규모 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의 캐나다 교환학생 라이프를 꿈꾸신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도시, 토론토까지는 버스나 자가용을 타고 가야 하며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웰랜드에는 마트, 헬스장, 식당, 술집, 쇼핑몰 등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는 버스가 잘 운행하지 않아서 먼 곳을 가기에는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저는 2학기에 갔기 때문에 캐나다의 여름과 겨울을 모두 지냈습니다. 9월의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대구만큼 무더운 날씨였으며, 12월의 캐나다는 눈을 안 보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은 눈이 왔으며 평균 영하 15도 정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칼리지는 금오공대보다 넓으며 3층 이상의 건물이 없습니다. 총 두 곳의 카페테리아와 하나의 헬스장, 농구장이 있고 넓은 잔디밭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너무 넓어서 저는 종강하는 날까지도 나이아가라 칼리지의 지리를 다 못 외웠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처음 나이아가라 칼리지에 가시면 이를 동안 총 세 개의 시험을 봅니다. Speaking, Grammar, Writing

시험을 보게 되는데, 꿀팁을 드리자면 Writing 시험은 무조건 길게 쓰세요. 어법에 맞든 안 맞든 일단 길게 쓰세요. 짧게 쓰면 좋은 레벨을 받기 힘든 것 같습니다. Speaking 시험에서는 '본인의 한국어 이름의 뜻',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소개하기'를 물어봤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인터넷에 '나이아가라 컬리지' 카페에 들어가시면 오리엔테이션 기간의 시험 문제가 공유된다고 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싶으신 분은 그 카페에 가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의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레벨 1,2,3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많이 분포되어있고 레벨 4,5에는 라틴계, 유럽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오공대 9명 중 2명만 레벨 4에 배정받고 나머지 인원은 레벨 3에 배정받았습니다. 교환학생 가시기 전에 Speaking 공부를 해 가신다면 레벨 4,5를 배정받게 되어 조금 더 많이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레벨 4부터는 숙제와 발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레벨 3이었는데 숙제도 별로 없고 발표도 몇 개 없어서 오히려 외국인 친구들과 더 즐거운 생활을 했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캐나다 교환학생의 장점은 홈스테이입니다. 홈스테이를 통해 캐나다 본토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캐나다의 생활방식, 식사, 문화 등 많은 것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저의 캐나다 홈스테이 집은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걸어서 학교까지 5분 거리의 집에 걸리게 되어 비교적 쉽게 학교까지 갔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 환승을 두 번 해서 오는 교환학생도 있었으며, 밥을 본인이 챙겨 먹어야 하는 홈스테이 집도 있었습니다. 정말 홈스테이 주인 by 주인입니다. 홈스테이 비용은 한 달에 750불(한화로 약 65만 원) 이었습니다. 생활비는 여행을 다니고 안 다니고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캐나다 교환학생 중 주말과 방학(중간고사 끝난 후, 약 10일간의 방학이 주어집니다) 을 활용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생활비를 많이 사용한 편입니다. 홈스테이에서 주는 아침, 점심, 저녁만 먹는다면 돈을 많이 아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비는 한 달 동안 한화로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잡으신다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사기에 충분(남자기준)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캐나다 나이아가라 컬리지에서는 매주 금, 토요일마다 '이벤트'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저는 거의 모든 이벤트를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불하는 등록금에 모든 이벤트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참여하지 않는다면 손해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보러 가기, 토론토 동물원 가기, 캐나다 윈더랜드(놀이공원)가 기, 각종 페스티벌 참여하기, 보트/카약 타기, 토론토 광장 스케이트 타기 등 수많은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신청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에도 학교 측에서 소개를 해주겠지만, 나이아가라 컬리지 홈페이지에 'INTERNATIONAL STUDENT' 란에서 'EVENT' 탭을 누르시면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신 후에는 본인의 이메일로 이벤트 티켓이 제공되는데, 그것만 지참하신다면 무료로 이벤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일단, 교환학생 신분으로서 나이아가라 칼리지의 동아리를 누리실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환학생은 4개월 정도 학교에 있기 때문에 동아리에서 교환학생을 뽑지도 않을뿐더러 동아리 같은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부대시설 중에 헬스장은 꼭 권하고 싶습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많은 헬스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헬스장을 이용해본 친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학교 안에 여러 식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캐나다의 스타벅스인 '팀 홀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맛도 있기 때문에 나이아가라 칼리지에 가시게 된다면 손에 항상 팀홀튼 컵을 들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또 추천할 곳은 '러닝 커먼스'라는 곳인데 아마 오리엔테이션 첫날 가시게 될 겁니다. 그곳에는 소파와 콘센트가 있어서 공강 시간에 쉴

수 있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나이아가라 컬리지에 교환학생을 가고 싶으신 분은 꼭 제가 쓴 교환학생 보고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꿀팁을 드리자면,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한국인 친구들과는 잠시 멀어지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친해진 친구는 학기 중에 계속해서 만나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캐나다에 영어를 배우러 온 본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으며,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강당에 앉아서 옆 사람과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의 기회를 잘 이용하신다면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저는 캐나다 교환학생을 통해 소중한 추억,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우정을 쌓았으며 캐나다에 이민 온 한국인분들과 유학생들, 홈스테이 주인과 홈 메이와의 추억 그리고 캐나다의 문화 등 교환학생 기간 중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캐나다 교환학생은 제 인생에서 평생 남을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말하기, 외국인에 대한 자신감도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